

클래식 발레의 정수...동화적 판타지와 완벽한 조화

광주시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리뷰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왕 전투·환상적 눈의 나라 겨울 정취 살려 크리스마스 대표작...화려한 미장센·정교한 안무 압권

패종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도가 발레리나의 그랑 바뜨망을 닮았다 생각할 즈음, 마법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특수장치를 통해 크리스마스 트리와 선물 상자가 커지자 아이들 눈이 앞전구처럼 빛난다.

원작자 E.T.A 호프만의 동화적 상상력이 극에 달한 순간은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왕의 전투 장면. 관객들은 정중동의 몸짓과 핀포인트 조명이 교차하는 '미니멀'한 전장으로 인도받는다.

익살스러운 군무와 겨울날 미장센으로 이토록 아름다운 세계를 구현하니... '호두까기 인형'은 전 세계 각지 발레단에서 매해 상연하는 대표작이지만 광주시립발레단이 펼친 이번 레퍼토리에 어떤 특별함이 있었을까.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박경숙)이 지난 20~21일 총 3회에 걸쳐 발레극 '호두까기 인형'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선보였다.

21일 오후 3시에 상연된 2회차 공연에는 최근 한국발레협회로부터 신인상을 받은 이상규 발레리노(호두까기 왕자 역), 지난해 같은 상을 받았던 강민지 발레리나(사탕요정)가 출연했다. 과자나라 왕자 역에 박범수, 꿈속의 클라라 역에 강은혜.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에서 마술사 드룽셀마이어는 호두까기 인형을 클라라에게 선물한다. 이후 시계가 자정을 알리자 방 전체가 커지면서 생쥐왕과 병정 인형이 대결하고, 클라라 인형이 눈의 나라와 과자 나라를 여행한다는 내러티브는 익히 알려졌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작품의 짜임새로, '클래식'과 '동화적 판타지'가 대위적으로 얽혀 있던 점이다.

클라라가 크리스마스 축연에서 병정 인형을 받고 행복해지는 플롯이 주축을 이뤘으나, '환상'이라는 모티브를 통해 전개되는 사탕 요정 서사도 큰 틀을 담당했다.

이 같은 설정은 소녀 클라라가 파드되(결혼이나 파티에 나오는 남녀 주인공의 2인무)를 출수 없기 때문에 차용된 것이다. 클래식 발레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리우스 피피에는 안무 작업 당시 대리사(사탕 요정)를 설정했다. 재안무 버전 중 클라라가 직접 파드되를 추는 경우도 있으나, 이번 공연처럼 구현하는 것이 원형에 가까웠다는 평가다.

왕좌에 앉아 있는 호두까기 인형과 클라라를 대



광주시립발레단이 지난 20~21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호두까기 인형'을 선보였다. 커튼콜에서 인사하는 이상규(왼쪽) 발레리노, 강은혜 발레리나.

신해 사탕요정과 왕자는 고공 안무, 무대를 횡단하는 턱 등 고난도 2인무를 선보였다. 다만 초입 이후에도 클라라-왕자 페어가 '관찰자' 역할을 벗어나 한 번쯤 활약하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상상이 남았다.

주역들의 오차 없는 안무도 특별함을 더했다. 강민지-박범수 페어는 다양한 기술을 보여주었는데 프리마 돈나의 정교한 스텝과 작지, 손, 발의 아름다운 끝선 처리는 과자 나라 '환상식'을 세련되게 묘사했다.

감초 역할인 마더 진저와 어린이 발레단의 존재도 빛을 발했다. 이 여성 배역에 남성 배우(홍민우)를 출연시켜 기존 젠더 룰 구분을 넘어섰다.

드룽셀마이어가 만들어 낸 인형 할리퀸(이용인), 콜롬빈(김민숙) 등의 독무도 뇌리에 각인됐

다. 이들은 등판에 태업을 감아둔 것처럼 '기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광주시립발레단이 얼마 전 무대화했던 '코펠리아' 속 자동인형 모습을 겹쳐보게 했다. 오케스트라 피트에서는 기계태업을 돌리는 듯한 효과음도 들려왔다.

1막 3장을 수놓은 '눈의 나라' 대목에서 펼쳐진 눈의 여왕(임예선)과 눈 앙상블(노윤정 외 23인)의 군무,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 모형과 마법의 마차는 저마다 이목을 사로잡는 미장센이었다. 이 장면에서 무용수들은 행성이 자전하면서 항성 주위를 공전하듯, 개개인이 스텝하면서 큰 대형을 이루며 빙빙 도는 '이중 회전'을 보여줬다. 난이도가 있는 안무였으나 큰 오차 없이 동작을 소화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이 남기는 여흥도 빼놓을 수 없다. 현악기와 목관악기가 어우러진 발랄한

1막 서곡과 '행진'으로 시작된 발레음악은 2막 '눈의 나라', 러시아 민속무곡 '러시아의 춤' 등으로 이어졌다.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아라비아의 춤', '중국의 춤', '갈피피리의 춤'도 무대를 수놓았다.

그 중 '꽃의 왈츠'는 악기를 쌓아가는 화성과 겹음의 묘가 빛을 발했다. 사탕요정의 시녀들이 일사불란하게 보여준 왈츠는 꽃이 개화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날 공연은 클라라가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머나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장면으로 끝맺었다. 커튼콜과 함께 울려 퍼진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도 송년 분위기와 어울렸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일상 속 행복...긍정 에너지 선물

조유나 'Happy DAY' 전, 31일까지 총장 22 갤러리

어린 시절의 억압적 환경은 예술가들에게는 창작의 기제가 된다. 심적 억압이 창작의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더 밝고 환하고 역동적인 작품으로 전이되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올해 광주미술상을 수상한 올해의 청년작가 조유나 작가가 전시를 연다.

19일 개막해 연말(31일)까지 총장 22 갤러리에서 펼쳐지는 이번 개인전의 주제는 'Happy DAY'.

주제와 동일한 명칭의 작품 'Happy DAY'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두 반려동물 형상화했다. 몸 안에 이미지화된 다양한 조형 무늬가 동일한데, 지나온 시간 함께 추억과 시간을 공유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관객들에게 작품을 대입해 동일한 행복감을 누

낄 수 있다. 작품을 보며 치유의 감각을 느끼으로써 관람객은 행복의 본질을 사유하고 그 순간을 만끽할 수 있다.

작품 'FLOW'는 흐름을 표현했다. 흐름은 물결일 수도, 바람일 수도 있으며 사유의 단면일 수도 있다. 얼핏 사람의 얼굴과 뇌를 무정형으로 표현한 것도 같지만, 흐름의 지향성은 밝고 환하다. 억압된 것들을 풀어내는 조형적 감각은 무의식에 내재된 엄격한 환경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난다.

조 작가는 수상 소감에서 "미술계 선배들이 주는 상이기에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조심스럽다"며



"앞으로 상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는 작품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이번 전시는 일상에서 행복을 선물해 주는 것들을 형상화한 입체 작품을 선보인다"며 "가벼운 마음으로 관람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작가와의 대화가 오는 27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예술공간 집' 문희영 대표가 대담자로 나선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주말은 청춘' 버스킹 공연.

<광주문화재단 제공>

크리스마스 이브엔 '문화광장'으로 모여라

광주문화재단 '청춘 크리스마스 버스킹'...청춘빛포차거리 광장

광주시는 최근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실증사업'을 통해 광주공원 청춘빛포차거리 광장을 조성했다. 청년과 시민이 힐링할 수 있는 '문화광장'을 표방하는 이곳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이 '청춘 크리스마스 버스킹'을 24일 오후 2시 청춘빛포차거리 광장(광주공원 포차 앞 광장 일대)에서 연다. 추억의 7080명곡, 크리스마스 캐럴을 비롯해 전 자음악단 가락, 동시대 스트릿댄스 동아리 113 street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EDM 사운드와 트로트, 가요를 접목한 전자음악단 가락이 막을 올린다. 이들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게임음악 크리에이터상을 수상

한 바 있다.

동시대 공연예술무용학과 스트릿댄스 전공자들과 무빈업스튜디오 연습생들로 구성된 '113 street'도 흥을 돋운다. 광주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기드온은 R&B를 기반으로 한 노래를 들려준다.

공연 대미는 포크송 밴드 '핑송 밴드'가 장식한다. 핑송은 유튜브에서 레트로 감성의 노래와 추억여행 콘텐츠 등으로 관객들과 소통해 왔다.

예술누리팀 위정선은 "광장 조성 공사가 마무리된 뒤 처음 열리는 버스킹 행사로 총 1시간가량 진행할 예정이다"며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들뜬 마음으로 거리를 나선 시민들의 걸음을 붙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사업' 공모 'Korea character WAVE' 당선

(재)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김용모)이 진행한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사업' 건축 설계공모에서 'Korea character WAVE: 캐릭터의 물결,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흐름'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디자인진흥원은 당선작에 대해 "외형 디자인,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동선의 흐름으로 광산구 쌍암근린공원과 유기적으로 잘 융합된 설계가 특징"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모는 총 12개 참가업체 중 4개사가 응모작을 제출했으며, 지난 11일 디자인진흥원 대세미

나실에서 전문가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와 결과 발표 전 과정을 유튜브 생중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했다.

디자인진흥원은 이달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초 착공,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광주시에 협력해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예 박자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사업은 광주디자인진흥원 부지에 약 5302㎡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사업비 308억원을 투입, 아시아 캐릭터를 활용한



아시아 캐릭터랜드 당선작 조감도.

<광주디자인진흥원 제공>

캐릭터산업 거점 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